

인원용사(人元用事)의 연원에 관한 연구

최원호*, 김나현**, 김기승**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작곡학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A Study on the Origin of Human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Won-Ho Choi*, Na-Hyun Kim**, Ki-Seung Kim**

Dept. of Orchestra & Composition, MokWon University*,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 이론의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는 연구이다. 첫째는 지장간의 날짜를 배속해서 사령(司令)을 적용하는 이론이 있다. 둘째로는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透出)한 간(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있다. 이 두 이론이 서로 상충 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 연구는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간 이론을 살펴 인원용사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장간의 변천 과정은 배속된 날짜 수가 역법에 맞지 않고, 간(干)의 배속도 명리 고서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고전에는 오행을 72일씩 분배한다 했으나, 오행 배속은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는 100일, 金은 65일, 水는 65일이다. 셋째, 寅, 申, 巳, 亥월은 戊土 7일로 정했지만, 寅월의 전 달은 丑월이므로 여기는 己土가 되고, 申월의 전 달은 未월이므로 여기는 己土가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子, 午, 卯, 酉월은 午월만 己土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행들의 월별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을 적용하는 이론보다는 투간(透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사주명리학, 지장간, 인원용사, 투출, 사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Hidden Stems (支藏干) in the Four Pillars of Destiny with regard to the use of human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人元用事). First, there is a theory of assigning period of governance for designated constituents (司令論) in the Hidden Stems of the Earthly Branch. Second, there is a theory that determines the structure of the Four Pillars by the Exposed Constituent from the Hidden Stems (透出論) in the Month Earthly Branch. Since these two theorie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cause confu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of Hidden Stems in the Four Pillars Classics and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ance period for constituent hidden stems and their valid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number of dates assigned to respective constituents does not correspond to the calendrical principle, and the assignment of the governance dates for each constitu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inciples proposed in ancient books of Four Pillars. Second, though it is said in the Classics that 72 days are equally assigned to each of the Five Elements, actual distributed days for the five elements was 65 days for Wood, 55 days for Fire, 100 days for Earth, 65 days for Metal, and 65 days for Water. Third, though it is said that 7 days should be designated to Yang Earth Mu for the months of Tiger 寅, Monkey, Snake, and Pig, it is logically more legitimate to assign those days to Yin Earth Ki since the month before Tiger is Ox, and the month before Monkey is Goat. Lastly, rationale behind assigning Ki Earth only to Horse Oh as constituting Hidden Stem while disregarding months of Rat, Rabbit, and Rooster is considered not reasonable. Looking at these results comprehensively, it is concluded that the Exposed Constituent theory is logically more appropriate than Assigned Governance theory.

Key Words Four pillars of destiny, Hidden stems, Designated governance periods in the hidden stems, Exposed stems from the month branch, Period of assigned governance

Received 24 Nov 2023 Revised 10 Jan 2024

Accepted 18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동양에는 예로부터 천원(天元), 지원(地元), 인원(人元)이라는 삼원(三元) 사상이 있다. 삼원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서 유래했다. 『음부경(陰符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생(生)하고 하늘이 죽이는 것은 도(道)의 이치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도적이요, 만물은 사람의 도적이요, 사람은 만물의 도적이니, 세 도적이 이미 마땅해지고, 삼재(三才)가 이미 편안해 지니라”[1]라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사상에 더하여,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 42장에서는 “도(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모든 사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을 짙어지고서 양(陽)을 안고 기(氣)가 솟구침으로써 어울리게 된다”[2]라 하여 삼원(三元) 사상에 음양(陰陽)의 기운을 더했다. 그리고 『역경(易經)』에서 말하기를 “둘로 나누어서 양의(兩儀)를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상징하며, 넷씩 세어서 사시(四時)를 상징한다”[3]라 하여 사계절의 운행 법칙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어서 『음부경(陰符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살피고 하늘의 운행을 파악하여 조종할 수 있으면 다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다섯 도적이 있으니, 이것을 보는 자는 번창할 것이고, 다섯 도적이 마음에 있으니, 천하에 베풀어 행하면 우주가 손안에 있고, 만 가지 조화가 몸에서 나오느니라”[4]라고 오행(五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 이는 명리학의 기틀이 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지인(天地人) 삼원(三元) 사상과 사시(四時)의 운행과 변화의 조화는 동양사상의 기원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명학(三命學)이라고 불리는 고법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연주(年柱)의 간지(干支)에서 연간(年干)을 록(祿)이라 하고 천원(天元)으로 칭하였고, 연지(年支)를 명(命)이라 하고 지원(地元)이라 칭하였으며, 연주(年柱)의 납음(納音)을 신(身)이라고 하고 인원(人元)으로 칭하였기에 록명신(祿命身)을 삼원(三元)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서자평(徐子平)이 일간 위주로 창시한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의 초기 서적 중 하나인 『낙록자삼명소식부주(洛珠子三命消息賦注)』에서는 납음(納音) 대신 지장간(地藏干)을 인원(人元)으로 하여 삼원(三元)을 분석

하고 있다[5]. 이후로 자평명리학에서는 천원(天元)은 사주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간(天干)이라 하고, 지원(地元)은 사주에서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지(地支)라고 하며, 인원(人元)은 사주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지에 감추어졌다 해서 지장간(地藏干)이라고 한다.

1.2 연구 목적과 방법

명리학에서는 격국(格局)을 선정할 때 월령(月令)에서 천간으로 투간(透干)한 것을 월령용신(月令用神)으로 격국을 선정하는 심효침(沈孝瞻)의 『자평진전(子平眞詮)』을 따르는 투간과가 있고, 월령에 배속된 사령(司令)을 사용하여 사령용신(司令用神)을 사용하는 서대승(徐大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이나 임철초(任鐵樵)의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따르는 사령과로 나누어 있다. 현재까지 명리학에서는 인원(人元) 즉 지장간(支藏干)의 성립과 그 근거에 관한 연구들만 있고 정확한 원리에 관한 결론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문헌에 소개된 지장간의 월별 배속 일수가 각기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당대(唐代)의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와 같은 삼명학 서적은 물론 자평명리학 서적인 서자평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송대(宋代) 서대승의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과 『연해자평』, 명대(明代)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 청초(淸初) 진소암(陳素庵)의 『명리약언(命理約言)』, 청대(淸代) 심효침의 『자평진전』과 임철초의 『적천수천미』, 그리고 20세기 중화민국 서락오(徐樂吾)의 『자평수언(子平粹言)』까지, 각종 명리학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간 이론을 세밀하게 살펴 지장간과 인원용사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지장간(支藏干)의 연원(淵源)

2.1 삼명학(三命學)에서 나타난 지장간

지장간(支藏干)의 시원(始原)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대부터 널리 사용되던 오행사시설(五行四時設)과 한대(漢代) 이후 정립된 토왕사계설(土旺四季設)이 그 시작점을 알 수 있다. 한(漢) 초기(初期)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각각의 오행별로 1년에 72일씩 용사(用事)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그 뒤 『회남자

《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는 土 72일을 사계절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6]. 이후 『경씨역전(京氏易傳)』에서 경방(京房)은 자오분시론(子午分時論)을 기반으로 역리(易理) 이론을 활용해서 사계절에서 土가 왕성해지는 것임을 증명했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는 『백호통(白虎通)』에서 土 72일을 사계절에 각각 18일씩 들어가게끔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7].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에 관련된 여러 서적의 지장간 표를 비교하면 다른 월별의 지장간(支藏干) 날짜 배속에는 큰 차이점이 있으나, 辰·戌·丑·未월에는 정기(正氣) 土가 모두 예외 없이 18일이나, 18.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합의되어서 통일된 토왕사계(土旺四季)의 논리 체계를 지속적(持續的)으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삼명학(三命學) 저서 중 가장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당대(唐代)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寅속에는 甲이 있다. … 子巳는 壬丁이 회집하는 몸체이고, 卯申은 乙庚이 사귀는 것과 동일하며, 丙은 午이고 辛은 酉이니 천간 없이 파형(破刑)이 될 수 없다. 癸는 亥 중에서 시작되고, 辰戌은 똑같이 戊土를 얻었다.”[8]

위의 인용문은 월지(月支)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단지 십이지지(十二地支)에서 본체(本體), 곧 십이지장간(十二支藏干)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삼명학(三命學)의 록명술(祿命術)에서 매우 중요시하던 기본적 개념이다. 辰·戌을 양대양(陽對陽)의 원리로 戌土와 대응시킨 것은, 곧 丑·未를 음대음(陰對陰)의 원리에 따라 己土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9].

한편 『이허중명서』에서는 월지장간(月支藏干)에 관해 분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辰에는 乙이 있으니 辰은 곧 木土로 이루어진다. … 戌(魁)에는 辛이 감춰져 있으니 戌은 곧 金土로 이루어진다. … 귀신(貴神) 丑은 癸를 얻었으니 丑은 水土로 이루어진다. … 未에는 丁火가 숨어있으니 곧 火土로 이루어진다.”[10]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고법명리학(古法命理學) 즉 삼명학인 『이허중명서』에서도 이미 辰·戌·丑·未월에서의 지장간(支藏干) 여기(餘氣)의 원리가 현대의 명리학과

같은 원리가 적용됐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시대의 낙록자(洛球子)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낙록자삼명소식부(洛球子三命消息賦)』에 자평명리학을 창출한 서자평(徐子平)이 주석을 달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洛球子三命消息賦注)』에는 지장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辰은 水의 곳간이고, 辰 속에는 봄의 남은 기운인 乙木이 있다. … 戌은 火의 곳간이고, 戌 속에는 가을의 남은 기운인 辛金이 있다. … 丑은 金의 곳간이고, 丑 속에는 겨울의 남은 기운인 癸水가 있다. … 未는 木의 곳간이고, 未 속에는 여름의 남은 기운인 丁火가 있다.”[11]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辰·戌·丑·未월의 여기(餘氣)는 乙·辛·癸·丁으로서 『낙록자삼명소식부주(洛球子三命消息賦注)』에도 지장간(支藏干)에 관해서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와도 똑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보면, 자평명리학의 주요 이론 중에서 중추적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장간 이론은 자평명리학의 창시자인 서자평(徐子平)이 삼명학(三命學) 서적인 『이허중명서』의 지장간 이론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2.2 자평명리학에서 나타난 지장간의 변천사

자평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의 성립에 관한 기록이 정리된 것은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자가 각종 문헌을 고찰한 결과 지장간은 월령(月令) 오행(五行)의 분배가 그 시작점이며, 점차 십간(十干)으로 치환이 되었으나, 송대(宋代) 서대승(徐大升) 이전까지에는 오직 월률분야(月律分野)에 관한 연구들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1253년 서대승(徐大升)은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에 일(日) 수(數)가 없는 지장간(支藏干)인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를 추가하여, 지장간(支藏干) 전체에 오행(五行)보다는 십간(十干)으로 변환시키고, 사주의 본명(本命)과 대운 및 세운 등등 운로상(運路上)의 모든 지지(地支)에다 적용해서 해당 명(命)의 격(格)을 파악하는 것에 사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의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와 현대 명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장간(支藏干)의 배속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지조화도』에서는 생지(生支) 월령인 寅월

과亥월의 지장간에 戊土가 빠진 것이 큰 특징이고 午를 제외한 왕지(旺支) 월령인 子월과 卯월과 酉월의 지장간(支藏干)에는 월지와 음양이 같은 본기(本氣)만 배속되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는 『자평진전(子平眞詮)』 『논용신변화(論用神變化)』에 기술된 “월령의 지장간(支藏干)은 … 십이지지 중 子, 午, 卯, 酉(왕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숨겨놓은 것이다”[12]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戊,庚,丙	己,丁	丁,乙,己	戊,壬,庚
巳	午	未	申
乙,癸,戊	用日爲主 專論財官		辛
辰			酉
乙			辛,丁,戊
卯			戌
丙,甲	癸,辛,己	癸	壬,甲
寅	丑	子	亥

[그림 II-1]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辯淵源)』의 「지지조화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주 중이나 세운 등에서 어떤 지지를 얻었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 지지 중 장간(藏干)이 그림 중 어떤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사주가 어떤 격국(格局)인지 파악한 뒤 단명(斷命)한다.”[13]

위 인용문에서는 사주의 원국이나 세운 등에서 만나서 얻는 지지를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에 나와 있는 지장간(支藏干)과 대입하여 어떤 것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확인하여 어떤 격국(格局)인지를 파악하고 사주를 단명(斷命)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삼재(三才)가 삼원(三元)이 되는 이치를 명리 고전 『연해자평(淵海子平)』 『논삼원(論三元)』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어 간지(干支)가 甲子라고 한다면 甲은 천원(天元)이고 子는 지원(地元)이고 子中의 쫓는 인원(人元)이다.”[14] 라고 인원(人元)을 지장간(支藏干)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림 II-2]는 『연해자평(淵海子平)』의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이다. 날짜가 월별 31일씩 배속되어 있으므로 1년의 총합계는 372일이다.

仲呂 4월	蕤賓 5월	林鐘 6월	夷則 7월
巳	午	未	申
戊 5일 1½분 庚 9일 3분 丙 16일 5분	丙 10일 3½분 己 10일 3½분 丁 10일 3½분	丁 9일 3분 乙 3일 2분 己 18일 6분	己 7일 1½분 戊 3일 1½분 壬 3일 1½분 庚 17일 6분
姑洗 3월	野 之 圖	月 律 分 之 圖	南呂 8월
辰			酉
乙 9일 3분 癸 3일 1분 戊 18일 6분			庚 10일 5½분 丁 己 장생 辛 20일 7½분
夾鐘 2월			無射 9월
卯	太簇 正月	大呂 12월	應鐘 10월
甲 10일 5½분 癸 장생 乙 20일 6½분			戌
寅			亥
太簇 正月			黃鐘 11월
寅	丑	子	亥
戊 7일 2½분 丙 7일 2½분 甲 16일 3½분	癸 9일 3분 辛 3일 1분 己 18일 6분	壬 10일 5분 辛 장생 癸 20일 7분	戊 7일 2½분 甲 5일 ½분 壬 18일 6분

[그림 II-2]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

송대(宋代)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월령 가운데 지지에 암장된 것이다. 간지에서 일간이 주(主)가 되고, 월지의 金木水火土를 취하여 용신으로 삼는데 그중에서 왕쇠를 취한다. 가령 자수에서는 계수를 취하는데 반드시 몇일에 태어났는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첫 1일에서 10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壬水를 취한다. 11일에서 30일 사이에 태어나면 癸水를 취한다. 이런 방법으로 월령의 용사(用事)를 판단하되, 하나의 방법으로만 취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론하여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한다.”[15]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먼저 날짜를 잘 따져 지장간(地藏干)의 어떤 것에 사령(司令) 했는지에 따라 왕쇠(旺衰)를 선정하고, 월령(月令)의 용사(用事)를 판단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미 송대(宋代)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도 지장간의 월령용신을 사용한 격국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훗날 청대(清代) 심효철(沈孝瞻)의 격국 이론서인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월지 지

장간(地藏干)의 사령(司令)이 아닌 월지 지장간의 투간(透干)을 격(格)으로 취하였다. 이 두 개의 고서 때문에 현재 명리학계에서도 취격(取格)을 하는 방법이 나뉘어 월지 지장간의 사령을 격으로 취하는 학파와 월지 지장간의 투간을 격으로 정하는 학파로 나뉘어 있다.

한편 지장간(支藏干) 문제에 관해서 중화민국의 서락오(徐樂吾)는 『자평수언(子平粹言)』 『논인원용사다과(論人元用事多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원(人元)은 용사(用事)의 신(神)이고 사령(司令)은 주로 왕성한 기(氣)이다. 어떤 궁에서는 인원이 하나가 아니고 쓰임에 강약과 다과의 구분이 있으니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는 옛 법을 근거로 나열한 규칙이 있다.”[16]

한편 위 인용문의 『자평수언(子平粹言)』 『논인원용사다과(論人元用事多寡)』의 다음 구절에는 『삼명통회(三命通會)』 『논인원사사(論人元司事)』에 기술된 지장간(支藏干)의 배속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戊 7일 庚 5일 丙 18일	巳	丙 7일 丁 3일 丁 18일	午	丁 7일 乙 5일 乙 18일	未	坤 5일 壬 5일 壬 20일	申
청명, 곡우	第一事之人元司圖				백로, 춘분		
乙 7일 壬 5일 戊 18일					辰	庚 7일 辛 23일	酉
경칩, 춘분					甲 7일 乙 23일	卯	辛 7일 戊 18일
입춘, 우수	소한, 대한	대설, 동지	입동, 소설				
艮 5일 丙 5일 甲 20일	寅	癸 7일 庚 5일 己 18일	丑	壬 7일 癸 23일	子	戊 5일 甲 5일 壬 20일	亥

[그림 II-3]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17]

『자평수언(子平粹言)』에 기술된 지장간 배속은 『삼명통회(三命通會)』 내용을 본 연구자가 정리해서 도식화한 두 가지의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중에서 두 번째인 [그림 II-4] 「인원사사지도」 제2번을 말한다.

[그림 II-3]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의 특이한 점은 생지(生支) 월령 중 巳월을 제외한 寅·申·亥월의 지장간(支藏干)에서 여기(餘氣)인 토만 5일이고 다른 월령의 지장간의 여기는 모두 7일로 동일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인중간토(寅中艮土), 신중곤토(申中坤土) 같은 주역의 패상(卦象)을 쓴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잡기(雜氣) 월령인 辰·戌·丑·未 지장간(支藏干)의 중기(中氣)가 양간(陽干)으로 이루어진 점은 매우 특이하다. 그리고 매월 30일씩 배분하였으므로 1년의 총합계는 360일이다.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戊 7일 庚 5일 丙 18일	巳	丙 9일 丁 3일 丁 18일	午	丁 7일 乙 5일 乙 18일	未	己 7일 壬 3일 庚 17일	申
청명, 곡우	第二事之人元司圖				백로, 춘분		
乙 9일 癸 3일 戊 18일					辰	庚 7일 丁 3일 辛 20일	酉
경칩, 춘분					甲 9일 癸 3일 乙 18일	卯	辛 7일 丁 5일 戊 18일
입춘, 우수	소한, 대한	대설, 동지	입동, 소설				
己 7일 丙 5일 甲 18일	寅	癸 7일 辛 5일 辛 18일	丑	壬 5일 辛 3일 癸 18일	子	戊 7일 甲 5일 壬 18일	亥

[그림 II-4]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2번[18]

[그림 II-4]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2번에 서는 왕지(旺支) 월령인 子·午·卯·酉월의 지장간(地藏干)에 모두 중기(中氣)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잡기(雜氣) 월령인 辰·戌·丑·未월의 지장간(支藏干)의 중기(中氣)가 모두 음간(陰干)으로 구성된 것이, 잡기(雜氣) 월령의 지장간 중기가 모두 양간(陽干)으로 구성된 [그림 II-3] 「인원사사지도(人元司事之圖)」 제1번과 전혀 다르다. 또한 1년의 총합계는 겨우 356일이다. 이는 월별 각각 30일씩 배분했으나, 子월만 26일로 배분한 결과인데, 이는 午월의 지장간 여기(餘氣)를 참조하여 예를 들었을 때, 子월에서 壬水는 원래는 9일인데 5일이라고 오류로 기록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각종 고서에 기술된 지장간(支藏干)의 차이점에 관하여 청대(清代)의 진소암(陳素庵)이 문제의 제기를 하였는데, 『명리약언(命理約言)』의 「간월령법(看月令法)」에는 지장간(支藏干)의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옛 서적에 12개의 월지(月支) 중에는 여러 개의 지장간(支藏干)을 갖고 있어 이들이 해당하는 날 수만큼을 나누어서 맡는다고 하는 분일용사(分日用事)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는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받들고 있지만, 진실한 이치는 아니다. 근본을 따져서 추론하면 寅卯는 다만 甲乙 木일 뿐이고, 巳午는 단지 丙丁 火일

뿐이며 申酉는 庚辛 金일 뿐이고, 亥子는 壬癸 水일 뿐이고 辰戌丑未는 단지 戊己 土일 뿐이다. 가령 亥 중에 甲이 있고 寅 중에 丙이 있으며 巳에 庚이, 申에 壬이 있는 것은 모두 木, 火, 金, 水의 생지(生地)가 되기 때문이다. 또 未 중에 乙, 戌에 丁, 丑에 辛, 辰 중에 癸가 있는 것은 木, 火, 金, 水의 묘지(基地)이기 때문이고 辰에 乙, 未에 丁, 戌에 辛, 丑에 癸가 있는 것은 모두 木, 火, 金, 水의 여기(餘氣)가 되기 때문이다. 또 寅과 巳에 戊가 있고 午에 己가 있는 것은, 모두 土인 戊·己가 모(母)인 火에 의해서 생왕(生旺) 되기 때문이다. 총괄적으로 말해 단지 그 氣가 있을 뿐이지 여러 지지(地支)의 위치를 각기 약간의 일자(日字)를 며칠씩 얻어 나누어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氣)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논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곁해서 취해야 하고 분야(分野)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기(本氣)를 위주로 삼고 그 이후에야 나머지 지장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구례(舊例)를 아래에 열거하지만, 만약 그 분야(分野)대로라면, 巳 중에 戊가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亥 중에 戊가 있고 寅, 申 중에 己土가 있는 것이, 어찌 이치에 맞다고 하겠는가? 고금(古今)의 논명에서 일찍이 亥월에 戊를 취하고 寅, 申월에 만나서 己를 취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은 土가 申을 생(生)하는 데서 억지로 끌어다 붙인 설인데 그래서 申 중에 戊, 己가 함께 7일을 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지지(地支)는 모두 어떤 천간이 담당하는 날짜를 나누어 놓았으면서 申에서는 왜 戊와 己의 날짜를 나누어 놓지 않았는가? 논명할 때 申을 만나면 戊를 써야 하는가? 己를 써야 하는가?[19]

[그림 II-5]는 1660년 전후 청대(清代) 진소암(陳素庵)의 『명리약언(命理約言)』 『간월령법(看月令法)』에 기술된 지장간(支藏干)인 구례(舊例) 부분을 본 연구자가 정리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庚 7.25 丙 7.25 戊 16.5	巳	丙 10.3 丁 9.3 己 11.3	午	丁 9.3 乙 3.1 己 18.6	未	戊己 7.3 壬 7.25 庚 16.3	申
청명, 곡우	乙 9.3 丙 3.1 戊 18.6	辰	命理約言 看月令法 舊例		백로, 춘분	庚 10.35 辛 20.65	酉
경칩, 춘분	甲 10.3 乙 20.6	卯			한로, 상강	辛 9.3 丁 3.1 戊 18.6	戌
입춘, 우수	己 7.25 丙 7.35 甲 16.5	寅	소한, 대한	대설, 동지	입동, 소설	戊 7.35 甲 7.25 壬 16.5	亥

[그림 II-5] 『명리약언』 『간월령법』 구례(舊例)[20]

『명리약언』 『간월령법』의 지장간(支藏干) 날짜는 월별 31일씩 1년의 합계는 372일이다. 참고로 진소암(陳素庵)은 1580년 전후 명대(明代) 장남(張楠)의 저술한 『명리정종(命理正宗)』을 구례(舊例)로 삼고 있다.

진소암은 『명리약언』 『간월령법(看月令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옛 서적에 음간(陰干)은 子 午 卯 酉에서 생(生)한다고 했는데 子 午 卯 酉 중에는 乙 丁 辛 癸에 해당하는 날은 배당을 하고 어찌하여 장생지(長生地)란 말만 있고 날짜는 배분하지 않았는가. 장생지(長生地)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날짜를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일(日)을 나누어 배당하지 않은 것인가? 또 양간(陽干)의 묘지(基地)에는 날짜를 나누어 놓고 있으면서 음간(陰干)의 묘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사시(四時 : 사계절)는 365일인데 모든 지지 속의 여러 천간이 모두 31일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사시(四時)가 372일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장차 어떤 설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각 천간별로 날짜를 나누는 것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21]

위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1년 사계절은 365일인데 어떻게 372일이 되는지에 진소암(陳素庵)은 의문을 품고 오죽하면 지장간(支藏干)의 날짜에 구애받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372라는 숫자가 나온 연원은 인도 점성술 체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바로 월률(月律)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인도 점성술인 낙샤트라(Nakshatra)는 베다(Vedas) 경전에 기원을 두고 천체(天體)를 27등분하여 27명의 신(神)에게 분배한 것으로, 360도의 천구를 달의 항성월 주기인 27.3일로 나누면 달의 하루 이동 각 13.2도가 나오며, 이를 다시 27개의 영역으로 쪼개어 27낙샤트라(Nakshatra)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소숫점 이하를 하나의 궁으로 활용하면 총 28개의 낙샤트라가 되어 28낙샤트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6]. 즉, 달의 하루 이동 각도 13.3도(度) X 28궁(宮)=372.4가 되며, 『연해자평(淵海子平)』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의 372일이나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구례(舊例)로 소개한 372일 등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기에, 372과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낙샤트라(Nakshatra) 체계는 당나라 때 불공(不空: 705~774) 화상이 『문수사리보살급제선소설길흉시일선악수요경(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 속에 처음으로 소

개를 하였다. 앞에서 이 372라는 숫자가 당나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불공 화상 이후 372수의 월률분야(月律分野)가 나온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2].

서락오(徐樂吾)의 『자평수언(子平粹言)』 『논인원용사다과(論人元用事多寡)』에는 인원용사(人元用事)인 지장간(支藏干)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침내 월에 따라 절기가 교차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오행을 가지고 360일에 배분하면 각기 72일이 된다. 임철초(壬鐵樵)가 지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서는 또 다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23]

[그림 II-6]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는 『자평수언』 『논인원용사다과』에서 기술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 수록된 지장간(支藏干) 배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입하	망종	소서	입추
戊 5일 庚 9일 丙 16일	己 10일 丙 9일 丁 11일	丁 9일 乙 3일 己 18일	己 7일 戊 3일 壬 3일 庚 17일
巳	午	未	申
청명	滴天髓闡微 人元用事圖		백로
乙 9일 癸 3일 戊 18일			酉
경칩			한로
甲 10일 乙 20일	卯	辛 9일 丁 3일 戊 18일	戌
입춘	소한	대설	입동
戊 7일 丙 16일 甲	癸 9일 辛 3일 己 18일	壬 10일 癸 20일	戊 7일 甲 5일 壬 18일
寅	丑	子	亥

[그림 II-6]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인원용사도(人元用事圖)』에는 월지의 지장간(支藏干)의 날짜를 각 30일씩 배분했으며 1년의 총합계는 360일로 구성되어 있다. 서락오는 『자평수언(子平粹言)』의 『논인원용사다과(論人元用事多寡)』에서 임철초의 지장간(支藏干)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매월 사령의 기한을 분담하여 위의 표로 비교했는데, 서로 들쭉날쭉 한다. 임철초는 본래의 인원 용사가 있는 것을 믿고 날의 기한을 나누었는데, 이치상으로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늘이 흘러가며 움직임에는 점차로 진퇴하고 갑자기 변경하는 이치는 없으니, 용사의 많고 적음은 바로 힘을 쓰는 비례이다.”[24]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서락오(徐樂吾)는 날짜의 기간을 나눈 것은 잘못된 이치로서, 서락오는 힘의 비례인 각각의 월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energy)의 비례로서 지장간(支藏干)에 속한 날짜의 수를 나눈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표 II-1>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장간(地藏干)의 날짜

생지(生支)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寅	戊 = 7일	丙 = 7일	甲 = 16일
申	戊 = 7일	壬 = 7일	庚 = 16일
巳	戊 = 7일	庚 = 7일	丙 = 16일
亥	戊 = 7일	甲 = 7일	壬 = 16일

왕지(旺支)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子	壬 = 10일	-	癸 = 20일
午	丙 = 10일	己 = 10일	丁 = 10일
卯	甲 = 10일	-	乙 = 20일
酉	庚 = 10일	-	辛 = 20일

묘고(墓庫)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辰	乙 = 9일	癸 = 3일	戊 = 18일
戌	辛 = 9일	丁 = 3일	戊 = 18일
丑	癸 = 9일	辛 = 3일	己 = 18일
未	丁 = 9일	乙 = 3일	己 = 18일

<표 II-1>의 현대 지장간(地藏干)의 월령(月令)별로 배속된 날짜 수를 다시 간(干)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현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장간 날짜 수

甲	33일
乙	32일
丙	33일
丁	22일
戊	64일
己	46일
庚	33일
辛	32일
壬	33일
癸	32일

<표II-2>에 나타난 월별 지장간(地藏干) 날짜 수의 배분을 보면 戊土가 64일로 압도적으로 많고 己土 역시 46일로 많은 날짜가 배정되어 있다. 한편 丁火만 22일로 압도적으로 적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양간은 33일로 음간은 32일로 배치해 왔다.

각 오행별로 이를 살펴보면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는 100일, 金은 65일, 水는 65일이다. 여러 고전에 의하면 오행별로 72일 또는 72.6일씩 용사(用事)해야 하는데 火와 土에서 어긋난 것이다. 이는 午중 己土와 寅, 申, 巳, 亥의 여기인 戊土의 과다 배속 문제라고 판단된다.

<표II-3>은 1년 365일을 오행별 십간별로 분리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장간(地藏干)의 배속 날짜 수를 선정할 것이다.

<표II-3> 이상적인 지장간의 배속 날짜 수

오행(五行)	양간(陽干)	음간(陰干)
木 : 73일	甲 : 37일	乙 : 36일
火 : 73일	丙 : 37일	丁 : 36일
土 : 73일	戊 : 37일	己 : 36일
金 : 73일	庚 : 37일	辛 : 36일
水 : 73일	壬 : 37일	癸 : 36일

3. 결론

명리학 이론에서는 지장간(支藏干)에 배속된 날짜의 비합리성 때문에 청대(清代) 진소암(陳素庵)은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었고, 20세기 근대의 서락오(徐樂吾)도 『자평수언(子平粹言)』에서 지장간에 배속된 날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명리학의 격국 이론을 연구하는 학파는 취격 부분에 있어서 투간(透干)을 적용하는 투간과와 월지 지장간에 일수를 배정하는 사령(司令)과로 갈라져 혼란스럽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간 이론을 세밀하게 살펴 인원용사(人元用事)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장간(支藏干)의 변천 과정에서는 1년은 365일이지만 현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60일을 비롯해 356일, 372일과 같이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당시의 시대상 역법이 반영되었기에 역법이 시대에 서로 맞

지 않으며, 간(干)의 배속 역시 명리 고전마다 서로 일치하지 않고, 수많은 동양 고전에는 오행(五行)을 72일씩 분배한다고 기술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지장간(支藏干)의 오행은 木은 65일, 火는 55일, 土는 100일, 金은 65일, 水는 65일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寅, 申, 巳, 亥 월령의 지장간에서 土가 과다 배속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寅, 申, 巳, 亥 월령(月令)의 지장간(支藏干)에서는 여기(餘氣)를 戊土를 7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寅월의 이전 달은 丑월이므로 己土가 寅월의 여기(餘氣)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申월의 이전 달은 未월이므로 己土가 申월의 여기(餘氣)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寅, 申월이 양간(陽干)이라는 지지의 음양(陰陽)적인 입장이라는 논리와 비교해 본다면 子, 午, 卯, 酉 월과 辰, 戌, 丑, 未월의 지장간에도 음양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음양의 논리는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역경(易經)』 팔괘의 이론을 기준으로 간지를 배정하면 未申, 丑寅의 방향에는 坤, 艮이 배치되고 이를 戊土라고 했으며, 辰巳, 戌亥의 방향에는 乾, 巽이 배치되고 이를 己土라고 하는 고대 기록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한편 子, 午, 卯, 酉월의 지장간(支藏干)에는 午월에만 유일하게 중기(中氣) 己土가 있다. 이를 하지(夏至)의 직전, 또는 火土 동궁설(同宮設) 그리고 금화교역(金火交易)의 준비단계와 같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연구자는 지장간(支藏干) 土의 문제와 다른 오행들의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司令)으로 격(格)을 취하는 이론보다는 투간(透干)과 회합(會合)으로 격(格)을 취하는 이론이 더 논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나아가 후속 연구로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陰符經』, “天生天殺 道之理也, 天地萬物之盜, 萬物人之盜, 人萬物之盜, 三盜既宜, 三才既安.”
- [2] 老子, 『道德經』, 第42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 [3] 『易經』, “分二以象雨, 掛一以象三揲之以四, 以象四時者.”

- [4] 『陰符經』, “觀天之道, 執天之行, 盡矣. 故 天有五賊, 見之者昌. 五賊在心, 施行於天, 宇宙在乎手, 萬化生乎身.”
- [5]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1-112.
- [6] 劉安, 『淮南子(淮南子) 上』, 안길환 譯, 서울: 명문당, (2013), 139.
- [7]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12.
- [8] 李虛中, 『李虛中命書』, 台北: 藝文印書館, (1968), “有甲…子巳體壬丁之會, 卯申同, 乙庚之交, 丙午辛酉, 無干不爲破刑. 癸亥亥中, 辰戌得同乎戊.”
- [9]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2.
- [10] 李虛中, 『李虛中命書』, 台北: 藝文印書館, (1968), “有乙則木土成之…魁裏藏辛則金土成之…貴神得癸則水土成之…未隱丁火則火土成之.”
- [11] 徐子平, 『珞珠子三命消息賦注』, 台北: 藝文印書館, (1968), “干者是生日天元也. 看干下有何支支內有何人元而與生日天元爲祿”, “辰乃水土之庫, 辰中有乙是春木之餘氣… 戌火庫, 戌中有辛是秋金之餘氣…丑金庫, 丑中有癸是冬水之餘氣…未木庫, 未中有丁是夏火之餘氣.”
- [12] 심효침 原著, 『산음 자평진진』, 김기승, 나혁진 編譯, 서울: 다산글방, (2021), 124.
- [13] 徐大升, 『子平三命通辯淵源』, 『地支造化圖』, “如四柱中弁歲運看得何支以, 支中所藏者天干前圖相合得何格局以斷之.”
- [14] 徐升, 『淵海子平』,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7), 『論三元』, “假令甲子, 以甲木爲天元, 子爲地元, 子中所藏癸水爲人元.”
- [15] 서승 原著, 『연해자평』, 오청식 譯, 서울: 대유학당, (2009), 69.
- [16] 서락오 原著, 『자평수언 제3권』, 김규승 외 共譯, 서울: 어은, (2020), 188.
- [17] 萬民英,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106-107.
- [18] 萬民英,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107-108.
- [19] 진소암 原著, 『명리학언』, 김기승, 나혁진 共譯, 서울: 다산글방, (2018), 56-58
- [20] 진소암 原著, 『명리학언』, 김기승, 나혁진 共譯, 서울: 다산글방, (2018), 59-60 『간월령법(看月令法)』 구례(舊例)를 참조하여 도식화, 57-59.
- [21] 진소암 原著, 『명리학언』, 김기승, 나혁진 共譯, 서울: 다산글방, (2018), 57-59.
- [22] 서승 原著, 『연해자평 완역정해 上』, 정진엽 譯解, 세종: 이현, (2020), 833.
- [23] 서락오 原著, 『자평수언 제3권』, 김규승 외 共譯, 서울: 어은, (2020), 189.
- [24] 서락오 原著, 『자평수언 제3권』, 김규승 외 共譯, 서울: 어은, (2020), 191-192.

최 원 호 (Choi, Won-Ho)



- 2014년 9월~현재 : 목원대학교 음악 대학 관현악·작곡학부 겸임교수
- 2023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동양학박사)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동양학석사)
- 2007년 6월 :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CNR de PARIS) 졸업 (음악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교육학, 공연예술, 시주심리, 명리진로상담, 율려, 내단
- E-Mail : guitara2000@mokwon.ac.kr

김 나 현 (Kim, Na-Hyun)



- 2021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
- 2019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동양학석사)
- 2017년 2월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동양학 학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성명학, MBTI, 인상학, 풍수, 문예창작, 불교심리학
- E-Mail : nahyun2357@daum.net

김 기 승 (Kim, Ki-Seung)



- 2012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 대학원 교수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졸업 (직업학박사)
- 2010년 2월 : KICU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 상담, 명리학, 교육학, 문예창작
- E-Mail : kbs4984@hanmail.net